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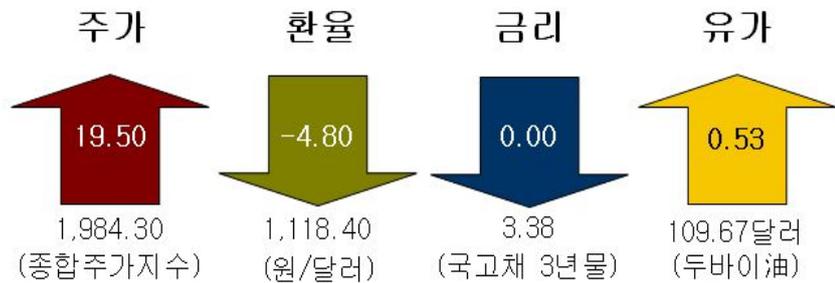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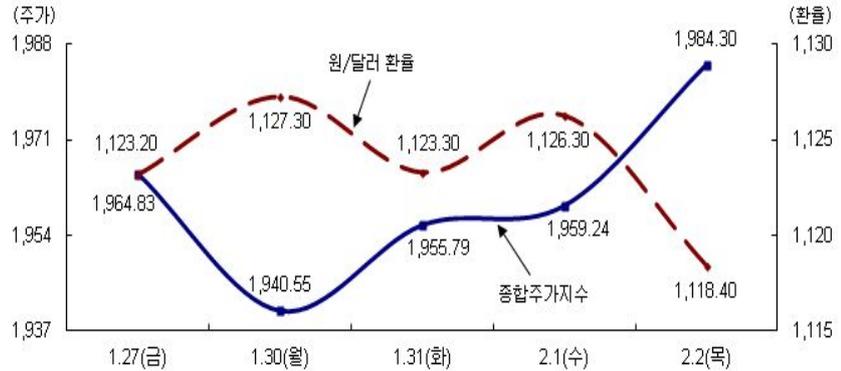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 삶의 질 지수(HQLI) 추이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7~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 삶의 질 지수(HQLI) 추이와 시사점

■ 삶의 질의 중요성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며 그 수준을 소득, 건강, 노동, 교육, 환경 등 객관적 구성요소들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경제력과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여부를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를 객관적 지표로 도출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삶의 질 지수(HQLI:현대경제연구원 삶의 질 지수)의 구성과 산출방법

삶의 질 지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 복지 및 생활기반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4대 구성항목은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소득, 교육수준, 가족, 안정, 정보 문화, 건강, 사회보장, 주거, 환경, 교통 등 10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2개의 세부지표를 갖는다.

삶의 질 지수는 20개의 세부지표에 각 5점의 가중치를 균일하게 부여하여 1995년도 대비 각 지표별 변화율을 측정·지수화하고 그 합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특정 지표의 변동성을 조정하고 15년간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자 지표별 5년 이동평균 값을 원지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고 표준화지수를 도출하였다.

■ 삶의 질 지수(HQLI)의 분석 결과

(삶의 질 지수 변화) 1995년 대비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개선 속도는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5년 동안 약 1.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는 100에서 132.3으로 1.3배 정도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쳤다. 특히, 삶의 질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95.1로 기준선인 100아래로 하락하였고,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동성을 완화한 표준화 지수로는 1995년 이래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1995년 100에서 2010년 126.6으로 높아졌다.

(구성항목별 추이) 삶의 질 지수의 4대 구성항목 중 보건 복지와 생활기반은 1995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지만, 경제적 안정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보건 복지는 1995년 기준인 20에서 2010년 41.5로 2배 이상 높아져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였고, 생활기반도 동기간 기준인 30에서 41.6으로 약 1.4배 개선되었다. 반면, 경제적 안정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분배 악화로 1995년 20에서 2010년 18.0으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사회적 유대도 1995년 30에서 2010년 31.2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표준화된 지수로도 보건 복지와 생활기반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는 1995년 대비 후퇴하였다.

(10대 구성요소별 추이) 첫째, 경제적 안정 중 소득 요소가 크게 낮아져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교육수준은 양 질적 개선으로 1995년 10에서 2010년 12.6으로 높아졌지만 소득 요소는 동기간 10에서 5.4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는 실업률이 1995년 2.1%에서 2000년 이후 3%대로 높아지고 지니계수도 동기간 0.251에서 0.289로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유대는 정보 문화가 꾸준히 향상되어 1995년 수준은 유지했으나 가족과 안전은 크게 악화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가족과 안전을 구성하는 이혼, 자살자, 범죄건수가 크게 늘어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공연 문화의 양적 성장으로 정보·문화는 지난 15년 동안 3배 정도 개선되었다.

셋째, 보건·복지는 건강과 사회보장의 모든 세부지수가 1995년 대비 상승하면서 구성항목 중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켰다. 건강과 사회보장의 지수는 1995년 기준 10에서 2010년 14.9와 26.6으로 상승했다. 이는 기대수명이 1995년 73.4에서 2010년 80.8세로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도 동기간 462명에서 870명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세부지표인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과 GDP대비 공공복지지출도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넷째, 생활기반의 주거·환경·교통도 모두 1995년 대비 개선되면서 보건 복지와 더불어 전체 삶의 질을 높였다.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확대되어 1995년 기준 5에서 각각 6.6과 8.3으로 높아졌다. 환경과 교통도 1995년 각 10에서 13.7과 13.1로 상승했지만 세부지표인 환경의 1인당 CO²배출량은 동기간 기준 5에서 3.7로 떨어졌고, 교통의 1대당 도로연장도 자동차 증가 속도가 더 빨라 1995년 5에서 2010년 3.4로 하락했다.

■ 시사점

1995년 이래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소득 증가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안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하락 추세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법률,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 유대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가족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가족 가치의 재조명, 직장과 가정의 양립, 공동체 의식을 높여 이혼율, 자살률, 범죄율을 모두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 확충 등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복지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지출 규모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성을 높여야 하고, 새로운 복지 신설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의 설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증가추세인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녹색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1. 삶의 질 정의와 중요성

○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¹⁾이며, 그 수준을 소득, 건강, 노동, 교육, 환경, 안전 등 객관적 구성요소 중심으로 측정²⁾함

- ‘삶의 질’이란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여 분석함
- 장영식 외(2007)는 ‘삶의 질’ 지수를 건강, GDP, 교육, 직업의 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 기회 등 8개 분야, 8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17위³⁾를 차지함
- KDI(2010)은 ‘삶의 질’을 수명, 보건, 안전, 분배 등 7가지 분야, 15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여 지수화하고 국제 비교한 결과 한국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27위에 머물렀음

< 장영식 외(2007)의 삶의 질 지표 >

분야	세부 지표
건강	건강수명
GDP	1인당 GDP
교육	非문맹률, 취학률
직업안정성	실업률
환경	CO2 배출량
가족생활	이혼율
안전	고의적 살인빈도
디지털 기회	전화이동전화-인터넷이용정도
8개	8개

자료: 장영식 외 (2007)

< KDI(2010)의 삶의 질 지표 >

분야	세부 지표
수명	기대수명
사회지출	복지지출 비중
보건	천명당 의사 수
	유아사망률
	의료지출/GDP
사회적 안전	자살률
	범죄율
	도로사망률
경제적 안전	실업률
	노령지출 비중
	노령 고용률
	산업재해
분배	지니계수
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7개	15개

자료: KDI (2010)

1) 김상균(1996)

2) 장영식 외(2007)

3) 우수한 IT인프라로 인해 디지털 기회 지수가 1위를 한 점이 크게 기여했음

○ 소득이나 경제력과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여부를 분석할 필요성 증가

- 1995년 1인당 GDP 1.2만 달러, 2010년 2.1만 달러에 도달하는 등 지난 15년간 소득은 약 1.8배 증가한 반면 행복감이나 만족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바,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고 추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OECD 회원국 속에서의 순위를 도출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 값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지수화 하여 도출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2. 삶의 질 지수(HQLI)⁴⁾의 구성과 산출방법

(1) 삶의 질 지수(HQLI)의 구성

○ 삶의 질 지수(HQLI)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및 생활기반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삶의 질 지수의 4대 구성항목은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교육수준, 가족, 안전, 정보·문화 건강, 사회보장, 주거, 환경, 교통의 10개 요소로 구성

<삶의 질 지수(HQLI)의 구성(4대 구성항목, 10대 구성요소)>



4) HQLI(Hyundai Research Institute Quality of Life Index)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추정한 삶의 질 지수임.

○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적 안정 4개, 사회적 유대 6개, 보건·복지 4개, 생활기반 6개의 20개⁵⁾로 구성

- 경제적 안정: 소득(실업률, 지니계수), 교육수준(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교육이수 연수)의 4개 세부지표를 지수화
- 사회적 유대: 가족(이혼율,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안전(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건수,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수), 정보·문화(인구 만명당 전시공연 횟수, 유무선 전화가입률)의 6개 세부지표를 지수화
- 보건·복지: 건강(기대수명,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와 사회보장(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의 4개 세부지표를 지수화
- 생활기반: 주거(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면적), 환경(1인당 CO² 배출량, 하수도보급률), 교통(1인당 車 등록대수,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의 6개 세부지표를 지수화

< 삶의 질 지수(HQLI)의 구성 체계 >

구성항목	요소	세부지표	개선방향	자료출처
경제적 안정	소득	실업률	-	통계청
		지니계수	-	통계청
	교육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평균 교육이수 연수	+	통계청
사회적 유대	가족	이혼율	-	통계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	대검찰청
	안전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 수	-	대검찰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수	-	경찰청
	정보 문화	인구 만명당 전시공연 횟수	+	한국문화예술위
		유무선 전화가입률	+	방송통신위원회
보건 복지	건강	기대수명	+	통계청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관리공단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	보건·복지부
생활 기반	주거	주택보급률	+	국토해양부
		1인당 주거면적	+	통계청
	환경	1인당 CO ² 배출량	-	환경부
		하수도 보급률	+	환경부
	교통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	국토해양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	국토해양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개선방향이 플러스(+) 일 경우 순기능 지표(12개)를 의미하며, 마이너스(-)일 경우 역기능 지표(8개)를 의미.

5) 지표의 구성과 세부 지표의 선택은 장영식 외(2007), 김용하 외(2009), KDI(2010), 기획재정부(2010)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음

(2) 삶의 질 지수 값의 도출

○ 세부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19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0년까지의 연도별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① 지표별 가중치 부여 : 10개의 구성요소에 가중치를 10씩 균등 배분. 요소별 2개의 세부지표에는 각각 5의 가중치를 부여⁶⁾

② '가중치 부여' 된 지수 도출(원지수)

- 20개의 세부지표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까지 연도별 변화율을 측정·지수화
 - 순기능 지표: $[1 + (\text{당해년도 지표값} - 1995\text{년 지표값}) / 1995\text{년 지표값}] * 5$
 - 역기능 지표: $[1 - (\text{당해년도 지표값} - 1995\text{년 지표값}) / 1995\text{년 지표값}] * 5$
 - 도출된 '가중 지수'의 합으로 삶의 질 지수를 산출

③ '가중치 부여' 된 지수 도출(표준화 지수)⁷⁾

- 20개 세부지표별로 5년 이동평균값을 도출하고 부여된 가중치 바탕으로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까지 연도별 변화율을 측정·지수화
 - 순기능 지표: $[1 + (\text{당해년도 5년이동평균} - 1995\text{년 5년이동평균}) / 1995\text{년 5년이동평균}] * 5$
 - 역기능 지표: $[1 - (\text{당해년도 5년이동평균} - 1995\text{년 5년이동평균}) / 1995\text{년 5년이동평균}] * 5$
 - 도출된 '가중 지수'의 합으로 삶의 질 표준화 지수를 산출
 - 1995~2010년까지의 세부지표별 5년 이동평균 값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됨. 2009년과 2010년의 이동평균을 위해 필요한 2011~12년의 세부지표 값은 HP 필터링을 통해 도출⁸⁾

$$\text{※ 세부지표의 5년 이동평균 값} = \frac{\sum(A_{t+2} : A_{t-2})}{5}, \quad A_t = \text{당해년도 지표 값}$$

6)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차별화'하기도 하지만, 시대별 개인별로 지표의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임.

7) 20개 세부지표 중 특정지표의 변화율이 너무 커서 그 중요성이 과다(또는 과소) 반영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이동평균값의 변화율로 대체함.

8) 2011~2012년의 세부지표값은 HP 필터링으로 도출된 최근 5개년도 값의 평균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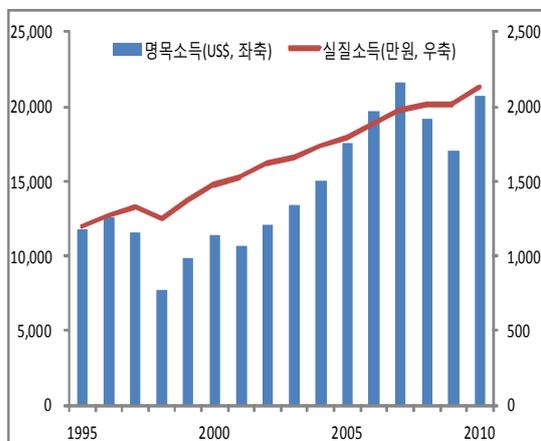
3. 삶의 질 지수(HQLI)의 분석 결과

(1) 삶의 질 지수(HQLI)의 추이

○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8배 증가하는 동안, 삶의 질도 100에서 132.3으로 개선되었지만 소득증가율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은 3차례의 대내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서 2010년까지 15년 동안 약 1.8배 증가
 -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기준(명목)으로 1995년 11,779달러에서 2010년 20,756달러로 원화기준(실질)으로도 동기간 1,196만원에서 2010년 2,132만원으로 증가
- 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100에서 132.3으로 1.3배 개선되었으나 실질 소득의 향상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경제위기 당시에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음
 - 1995년을 100으로 본 삶의 질은 2010년 132.3으로 32.3p 개선되었는데, 이는 소득 개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특히, 97년 외환 위기에는 95.1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였고,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삶의 질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음
 - 경제위기에 따른 큰 변동성을 완화한 표준화된 삶의 질 지수로는 1995년 100에서 2010년 126.6으로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소득 증가와 삶의 질 개선 속도는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자료: IMF.

< 삶의 질 지수(HQLI)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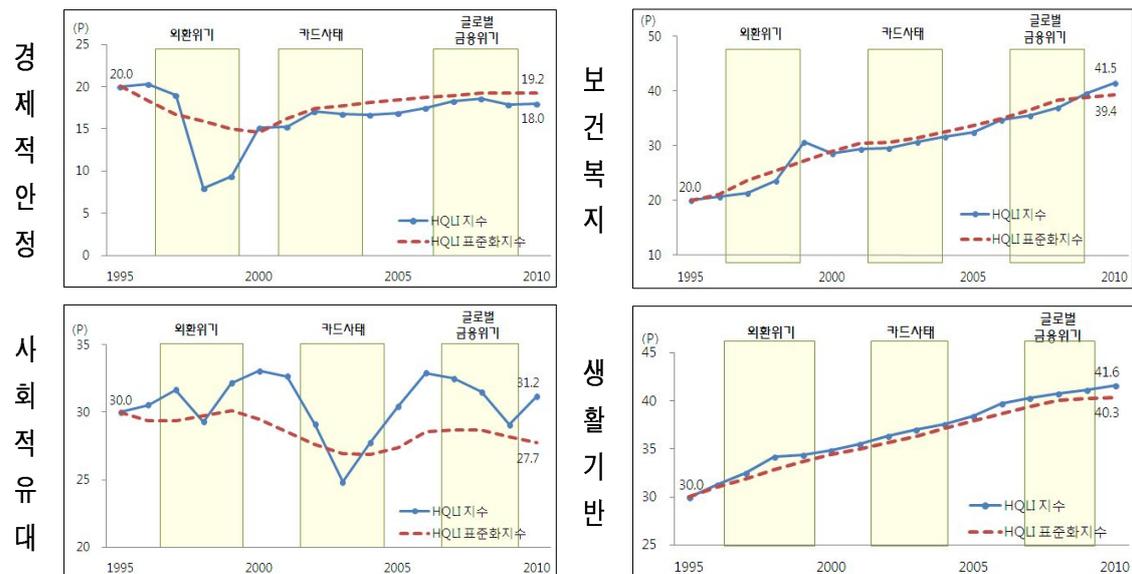
○ 삶의 질 지수(HQLI)의 4大 구성 항목 중 보건·복지와 생활기반은 1995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경제적 안정은 오히려 하락

- 건강, 사회보장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항목과 주거, 환경, 교통으로 구성된 생활기반 항목은 전체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보건·복지는 1995년 20에서 2010년 41.5로 2배 이상 높아져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였고, 생활기반도 동기간 30에서 41.6로 1.5배 이상 개선
- 반면, 경제적 안정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분배 악화로 1995년 대비 하락하였고, 사회적 유대도 이혼율, 범죄율 증가 등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음
 - 경제적 안정은 1995년 기준 20에서 2010년 18.0으로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사회적 유대도 1995년 30에서 2010년 31.2로 지체되고 있음

○ 표준화된 지수로도 보건·복지와 생활기반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는 1995년 대비 후퇴

-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 모두 1995년 이래 기준 지수 아래에 머물러 있음
 - 경제적 안정의 표준화 지수는 1995년 기준 20에서 2010년 19.2로 낮아졌고, 사회적 유대 지수도 동기간 30에서 27.7로 2.3p 낮아짐
 - 반면, 보건·복지와 생활기반의 표준화지수는 1995년 각각 20과 30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0년 39.4와 40.3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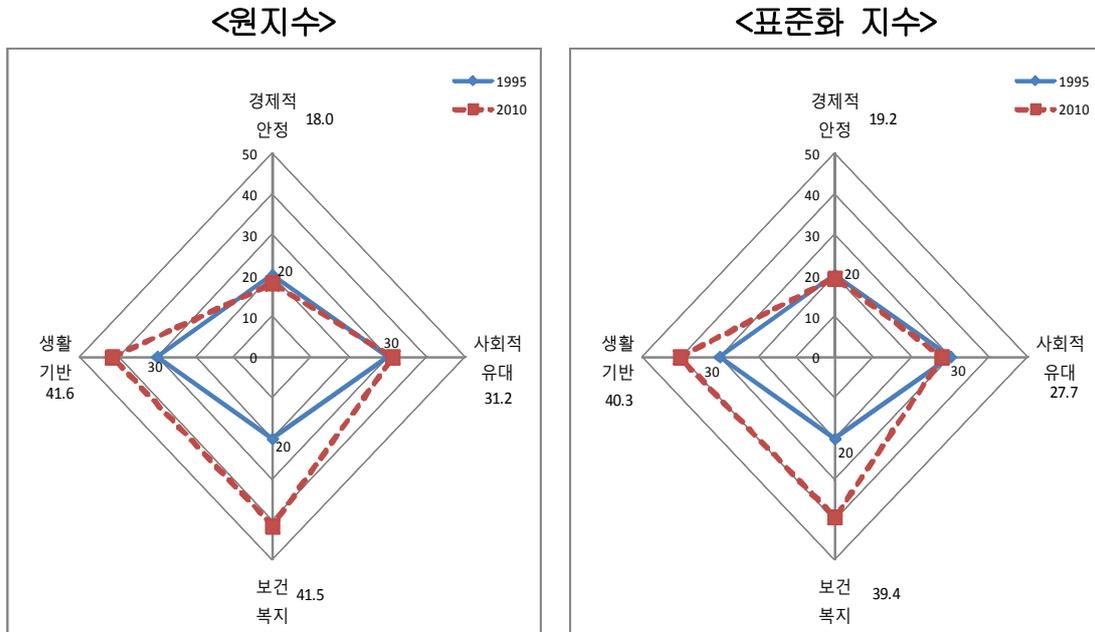
<삶의 질 지수(HQLI)의 4大 구성항목별 비교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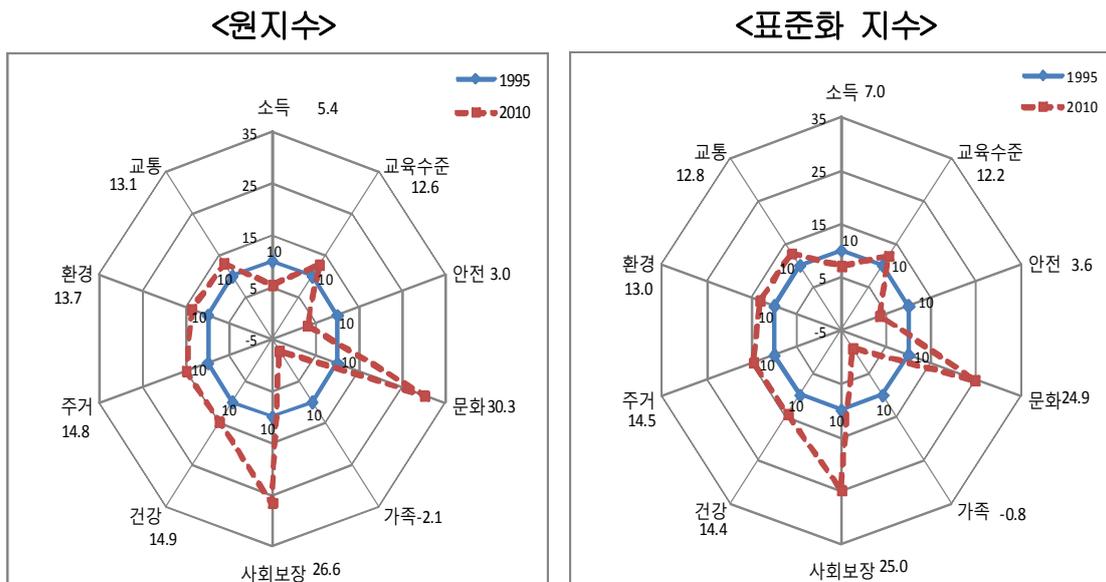
<참고1> 삶의 질 지수(HQLI)의 1995년 VS 2010년 비교

- 4大 구성항목별 지수 비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각 항목의 숫자는 2010년 항목별 지수임.

- 10大 구성요소별 지수 비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각 요소의 숫자는 2010년 요소별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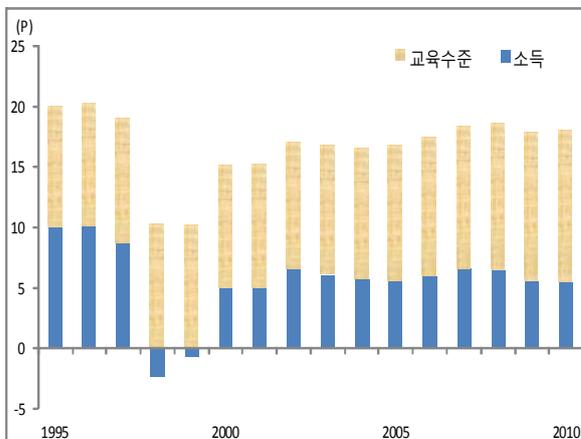
(2) 삶의 질 지수(HQLI)의 구성항목별 추이

1) 경제적 안정

○ 경제적 안정은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時마다 소득 요소가 큰 폭으로 급등락하면서 2010년 지수가 1995년 보다 낮아짐

- 삶의 질 지수(HQLI) 중 경제적 안정은 1995년 기준보다 낮아 삶의 질을 악화
 - 경제적 안정의 구성요소 중 소득은 1995년 기준 10에서 2010년 5.4로 낮아진 반면, 교육수준은 동기간 10에서 12.6으로 개선
- 빈번해진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경제적 안정이 지난 15년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1995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소득 중 실업률은 1995년 기준 5에서 외환위기 당시에는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등 경제위기로 악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도 기준을 밑돌며 2010년 1.2를 기록함. 지니계수도 1995년 기준인 5에서 2010년 4.2로 악화
 - 실제로, 실업률은 1995년 2.1%에서 외환위기 당시 6~7%로 높아졌고, 이후에도 3%대로 여전히 높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1995년 0.251에서 2010년 0.289로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반면, 교육수준은 양·질적으로 꾸준히 개선됨
 - 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학교)와 평균 교육이수 연수는 1995년 기준 5에서 꾸준히 향상되어 2010년 6.7과 5.9로 상승함

<경제적 안정의 구성요소 추이>



< 경제적 안정의 세부지표별 변화 >

구성요소	세부지표	원지수		표준화지수	
		1995	2010	1995	2010
소득	실업률	5	1.2	5	2.8
	지니계수	5	4.2	5	4.2
	계(A)	10	5.4	10	7.0
교육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5	6.7	5	6.4
	평균 교육이수 연수	5	5.9	5	5.8
	계(B)	10	12.6	10	12.2
지수(A+B)		20	18.0	20	19.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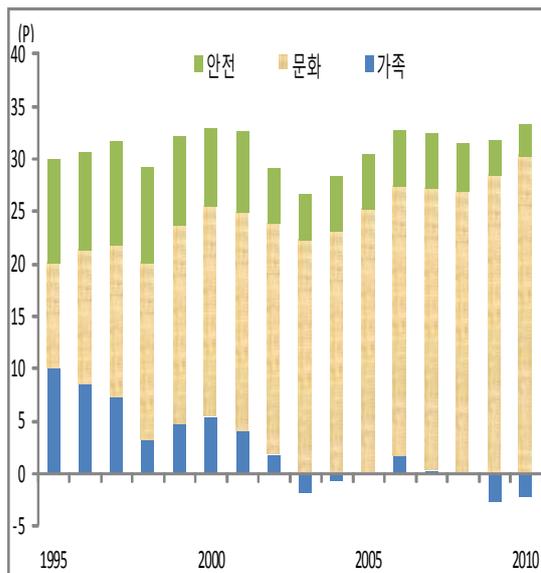
주: 경제적 안정의 구성요소 추이는 원지수이며 누적 추이임.

2) 사회적 유대

○ 사회적 유대는 가족과 안전이 크게 약화되어 삶의 질을 낮추었지만, 정보·문화의 꾸준한 향상으로 1995년 수준은 유지됨

- 삶의 질 지수(HQLI) 중 사회적 유대는 1995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회적 유대의 구성요소 중 가족과 안전은 -2.1과 3으로 기준인 10을 크게 밑돌며 하락한 반면, 정보·문화는 1995년 10에서 2010년 30.3으로 3배 상승
- 범죄율 증가와 전통 가족개념의 약화로 구성요소 중 안전과 가족은 1995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로 삶의 질을 가장 악화시킴
 - 주요 범죄건수의 큰 폭 증가로 범죄율은 1995년 5에서 2010년 -2.8로 낮아진 반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기준 5에서 5.8로 상승
 - 이혼율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1995년 기준 5에서 2010년 각각 2.3과 -4.4로 낮아졌는데 특히, 두 지표는 경제위기시 더 큰 타격을 받았음
 - 실제로 형법범인 주요범죄 건수는 1995년 803건(인구 10만명당)에서 1,995건(2009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의 세부지표인 자살률도 1995년 인구10만명당 10.8명에서 계속 높아져 2010년 31.2명으로 약 3배 증가
- 반면,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공연 문화의 양적 향상으로 정보·문화는 지난 15년 동안 3배 정도 개선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함
 - 인구 만명당 전시공연 횟수와 유무선 전화가입률은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1995년 기준 5에서 2010년 각각 14.5와 15.9로 높아져 삶의 질을 개선

< 사회적 유대의 구성요소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사회적 유대의 구성요소는 원지수이며 누적 추이임.

< 사회적 유대의 세부지표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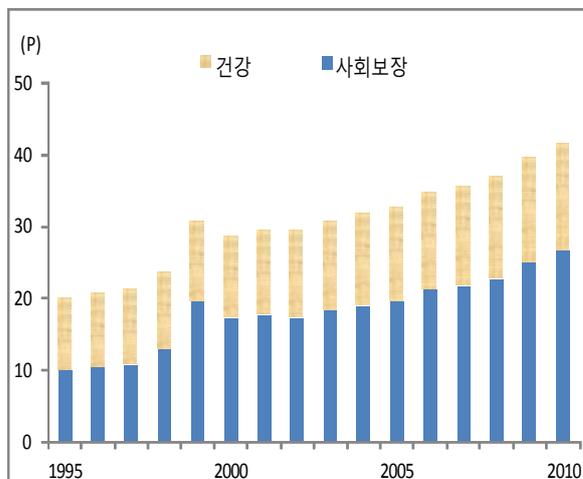
구성요소	세부지표	원지수		표준화지수	
		1995	2010	1995	2010
가족	이혼률	5	2.3	5	2.2
	자살률	5	-4.4	5	-2.9
	계(B)	10	-2.1	10	-0.8
안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수	5	5.8	10	6.0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수	5	-2.8	10	-2.4
	계(B)	10	3.0	10	3.6
정보문화	인구 만명당 전시공연 수	5	14.5	5	9.9
	유무선 전화가입률	5	15.9	5	14.9
	계(A)	10	30.3	10	24.9
지 수(A+B+C)		30	31.2	30	27.7

3) 보건·복지 요인

○ 보건·복지는 건강과 사회보장 시스템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2010년에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4대 구성항목 중 삶의 질을 가장 개선시킴

- 삶의 질 지수(HQLI) 중 보건·복지는 1995년 대비 삶의 질을 가장 높임
 - 보건·복지의 구성요소 중 사회보장은 1995년 기준 10에서 2010년 26.6으로 2배 이상 개선되었고, 건강도 동기간 10에서 14.9로 높아짐
- 건강은 꾸준한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1995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
 - 건강 지표인 기대수명은 1995년 5에서 2010년 5.5로 높아졌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도 1995년 5에서 9.4로 개선
 - 이는 건강의 기대수명이 1995년 73.4세에서 2010년 80.8세로 높아졌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도 동기간 462명에서 870명으로 많아졌기 때문임
- 사회보장도 의료, 연금 등 복지 시스템 확대로 개선되어 삶의 질을 높임
 - 사회보장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1995년 기준 5에서 2010년 10.1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도 1995년 5에서 16.5로 상승
 - 실제로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이 1995년 42.4%에서 84.9%(2009년)로 높아졌고 정부의 공공복지지출도 1995년 GDP대비 3.2%에서 2010년 10%대로 높아져 전체 삶의 질의 높이고 있음

<보건·복지의 구성요소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보건·복지의 구성요소 추이는 원지수이며 누적 추이임.

< 보건·복지의 세부지표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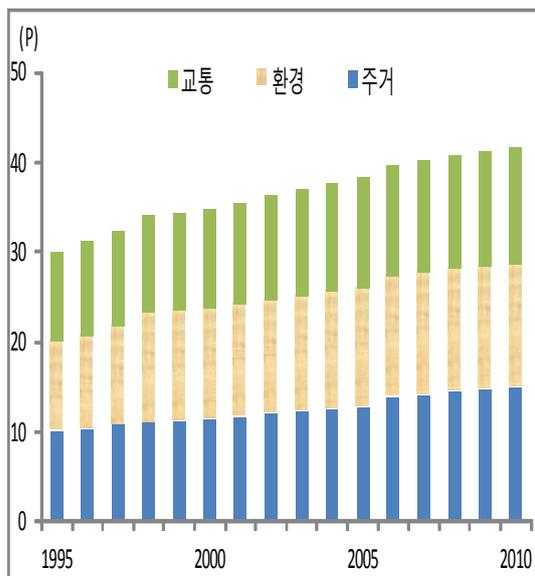
구성요소	세부지표	원지수		표준화지수	
		1995	2010	1995	2010
건강	기대수명	5	5.5	5	5.5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5	9.4	5	8.9
	계(A)	10	14.9	10	14.4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5	10.1	5	11.0
사회보장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5	16.5	5	14.0
	계(B)	10	26.6	10	25.0
	지수(A+B)	20	41.5	20	39.4

4) 생활기반 요인

○ 생활기반의 주거, 환경, 교통도 모두 1995년 대비 개선되면서 보건·복지와 더불어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 삶의 질 지수(HQI) 중 생활기반은 1995년 대비 약 1.4배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생활기반의 구성요소 중 주거는 1995년 기준 10에서 2010년 14.8로 환경과 교통도 1995년 기준 10에서 2010년 각각 13.7, 13.1로 상승
- 주거, 환경, 교통의 생활여건은 1995년 대비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환경오염 배출량 증가와 교통 체증은 악화됨
 -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의 주거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1995년 기준 5에서 2010년 각각 6.6과 8.3으로 상승
 - 환경은 1인당 CO²배출량이 1995년 9.9tCO²에서 2010년 12.5tCO²로 증가되어 지수가 기준 5에서 3.7로 낮아진 반면, 하수도보급률은 45.2%에서 90.1%로 높아져 지수도 1995년 기준 5에서 10으로 2배 높아짐
 - 교통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5년 5에서 2010년 9.7로 개선된 반면, 자동차 증가 속도 대비 도로연장 한계로 1대당 도로연장은 동기간 5에서 3.4로 하락

< 생활기반의 구성요소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생활기반의 구성요소 추이는 원지수임.

< 생활기반의 세부지표별 변화 >

구성요소	세부지표	원지수		표준화지수	
		1995	2010	2005	2010
주거	주택보급률	5	6.6	5	6.4
	1인당 주거면적	5	8.3	5	8.1
	계(A)	10	14.8	10	14.5
환경	1인당 CO ² 배출량	5	3.7	5	3.8
	하수도보급률	5	10.0	5	9.2
	계(B)	10	13.7	10	13.0
교통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5	9.7	5	9.4
	1대당 도로연장	5	3.4	5	3.4
	계(C)	10	13.1	10	12.8
지 수(A+B+C)		30	41.6	30	40.3

3. 시사점

○ 경제적 안정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공식적인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체감 실업률⁹⁾을 낮추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
- 최근 하락 추세에 있는 고용률을 제고하고 체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률, 의료, 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행 확립,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회적 유대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구성 요소는 가족과 안전이며, 특히 이혼, 자살, 범죄건수 등의 세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

- 가족의 가치(family value)에 대한 재조명,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보육시설 확충, 양육비용 지원 등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전체적 노력이 필요함
- 이혼율과 자살률이 1995년에 비해 나빠진 것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함
- 더욱이 최근 모든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을 낮추고, 범죄건수를 줄이기 위해 공동체적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확대함
- 자살률이 15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 급증했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2.5 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등 노인인구가 많은 시골지역의 자살률이 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9)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한파 지속」 2012.1.20.

○ 보건·복지 항목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지만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 확충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전히 복지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지출도 당분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복지 관련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 제도의 신설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의 설계를 강구함
- 최근 설문조사¹⁰⁾에 따르면, 20~30대일수록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주택 및 보육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함

○ 생활환경의 경우, 1995년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 CO²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최근 단전 및 전력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 제품의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함

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김동열 (02-2072-6213, dykim@hri.co.kr)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조호정 (02-2072-6217, chjss@hri.co.kr)

10) 현대경제연구원, 「제9회 대한민국 경제행복지수」 2012.1월.

<참고 2>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체계 비교

장영식 외(2009) 삶의 질 지수		KDI(2010) 삶의 질 지수		현대경제연구원 (2012)	
건강	건강수명	수명	기대수명	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GDP	1인당 GDP	사회지출	복지지출/GDP	교육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30세 이상 평균교육연수
교육	非문맹률, 취학률	보건	천명당 의사 수	가족	이혼율
직업 안정성	실업률		유아사망률		인구10만명당 자살자
환경	CO2 배출량		의료지출/GDP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수
가족 생활	이혼율	사회적 안전	자살률	안전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건수
안전	고의적 살인빈도		범죄율		1만명당 전시공연횟수
디지털 기회	전화-이동전화-인터넷 이용정도		도로사망률		정보 문화
8개	8개	경제적 안전	실업률	건강	기대수명
			노령지출/GDP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노령 고용률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빈곤율	절대빈곤율	사회 보장	공공사회복지지출
			상대빈곤율		주택보급률
		7개	15개	주거	1인당 주거면적
<p><기타 경쟁력 지표></p> <p>-경제: 1인당GDP, 성장률, 근로시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p> <p>-교육: 교사1인당 학생수, 교육비지출비중, 고등교육이수율 등</p> <p>-환경: CO2배출량, 물소비량, 쓰레기배출량</p> <p>-인프라: 상수도보급률, 도로보급률 등</p>				환경	1인당 CO2 배출량 하수도 보급률
				교통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10개	20개

<참고3> HRI 삶의 질 지수 세부지표 값

구성 항목	요소	세부지표	1995	2000	2005	2010
경제적 안정	소득	실업률(%)	2.1	4.1	3.7	3.7
		지니계수	0.251	0.266	0.281	0.289
	교육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학교 명)	28.2	28.7	25.1	18.7
		평균 교육이수 연수(년)	9.7	10.2	11.0	11.4
사회적 유대	가족	인구 천명당 이혼(건)	1.5	2.5	2.6	2.3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명)	10.8	13.5	24.7	31.2
	안전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 수(건)	803	1091	1693	206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수(건)	552	618	445	459
	정보 문화	인구 만명당 전시공연 횟수(건)	2.0	3.5	4.4	5.8
		유무선 전화가입률(%)	22.4	50.8	63.6	71.1
보건 복지	건강	기대수명(년)	73.4	75.9	78.6	80.8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명)	462	578	711	870
	사회 보장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42.4	82.1	80.4	85.7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3.2	4.8	6.4	10.6
생활 기반	주거	주택보급률(%)	86.0	96.2	105.9	112.9
		1인당 주거면적(m ²)	17.2	20.2	22.9	28.5
	환경	1인당 CO ² 배출량(t)	9.94	10.31	11.85	12.46
		하수도 보급률(%)	45.2	70.5	83.5	90.1
	교통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대)	0.19	0.26	0.32	0.36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m)	8.77	7.36	6.64	5.9

자료: 통계청, 국토해양부, 교과부, 환경부, 대검찰청 외.

- 주: 1)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5년 주기의 인구총주택조사의 자료에 근거하는 바, 연도별 수치는 5년간 변화폭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치를 산정함
- 2) 유무선 전화가입률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100명당 가입률에 각각 50%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무선 전화가입률을 재산정
- 3) 주요범죄 건수는 형법범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위조, 공무원 및 과실범죄를 포함
- 4)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18세 인구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자 비중임 한편,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2010년은 지난 5년간의 평균증가율로 추정함
- 5) 1인당 주거면적은 5년 주기의 인구총주택조사의 자료에 근거하는 바, 연도별 수치는 5년간 변화폭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치를 산정함
- 6) 1인당 CO₂ 배출량의 2010년 수치는 지난 5년 간의 평균 증가율로 추정함
- 7)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의 2010년 수치는 지난 5년 간의 평균 증가율로 추정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2.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	-0.5
일본	3.9	6.0	2.1	3.3	-1.1	-0.9	-3.6	-1.3	5.6	-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27일	2월 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0	1.82	-0.08%p
	엔/달러	81.19	80.66	77.66	77.47	76.20	-1.27¥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06	1.3167	0.0061\$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660	12,705	45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841	8,877	3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8	3.38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3.2	1,118.4	-4.8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64.8	1,984.3	19.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27일	2월 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9.60	-	\$
	Dubai	88.80	106.75	104.89	109.14	109.67	0.53\$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17.81	310.90	-6.9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3,635	4,664	1,310	1,427	1,412	1,416	5,565	6,344	
	증감률 (%)	(-13.9)	(28.3)	(29.6)	(18.7)	(21.4)	(10.0)	(19.3)	(14.0)	
	수입 (억 \$)	3,231	4,252	1,239	1,343	1,349	1,313	5,244	6,054	
	증감률 (%)	(-25.8)	(31.6)	(26.2)	(27.1)	(27.6)	(13.4)	(23.3)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